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광오* · 안진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여, 다수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의 창업의지와 그 영향요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의 창업인프라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의 창업인프라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과의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애로사항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창업인재의 발굴과 대학생에게 맞는 창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대학별로 차별화된 대학의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창업, 개인적 특성, 창업인프라, 창업애로사항, 창업의지

I. 서론

최근 대학생취업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대학생과 청년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장기적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정으로 더 이상 취업만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 활성화 노력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홍정표, 2015).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취업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청년창업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관련 법·제도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며, 추진내용 역시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창업의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선행 과제로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위해, 이러한 결정요인들과 종속변수간의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지금까지 많은 창업연구자에서 있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고, 개인적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심리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추구성향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의 창업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업인프라가 대학생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연구(Peterman & Kennedy, 2003)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Hostager & Decker, 1999)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인프라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창업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인적 특성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된다(Herron & Robinson, 1993).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특성은 지금까지도 많은 창업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있어서도 그들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연호, 2009).

대학생들이 창업을 결정하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성격적 특성의 중요한 차원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이므로 제시되고 있다(Amit et al., 1993).

성취욕구와 창업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의 성취동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egley & Boyd, 1987). 이러한 결과는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특성에 있어서도 성취욕구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의 하나로 나타났다(이장우 & 장수덕, 1998). 그러나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기업가적 경향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있다(Sexton & Bowman, 1985). 즉 성취욕구가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거나 매우 제한적이라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성취욕구가 높은 이들 가운데는 창업보다는 정치나 정부의 고위직 관료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자들도 있다(장수덕, 2000).

다음으로 위험추구성향이란 위험을 평가절하거나 위험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험추구성향에 대한 연구 역시, 그 결과가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위험감수에 대한 기업가정신연구는 기업가가 공공조직의 관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관리자들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Sexton & Bowman, 1985).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학자에 따라서는 위험감수성향이 사업 오너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들은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Amit et al., 1993).

2. 대학 창업인프라

대학의 창업인프라 중에는 먼저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Peterman & Kennedy, 2003). 이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이나 강좌를 많이 수강한 학생들 혹은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이 창업이나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나 효과에 관한 것 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창업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많다(이재훈, 2014).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또한 창업의도나 대학생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 경우들이 많다(Peterman & Kennedy, 200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 프로그램들은 창업의도나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 경영학교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Hostager & Decker, 1999). 이렇듯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내 창업관련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Izedonmi & Okafor(2010)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프로그램들이 창업의도를 불러일으키는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또한 Kennedy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에 창업프로그램이나 창업정책들이 기업가적 행동을 개발하게 되면 개인의 창업에 이르게 하는 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업 애로사항

대학생의 창업은 조직관리, 판로개척, 자금조달, 기술개발 등 비즈니스 관련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운영에 관한 노하우 부재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부도 혹은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성호 & 양동우, 2015).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측면에서의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신생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이며, 다음으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인력문제, 기술개발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자금, 입지, 기술, 인력, 시장, 정보, 기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공급요건들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별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애로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상기 애로요인들을 종합하면, 신생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자금조달 문제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은 마케팅, 인력조달, 기술개발과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가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창업초기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인 즉, 이들 애로요인들이 요인별로 분리되어 있기 보다는 상호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아이디어 중심의 신생기업들에게 있어 기술은 기술 이외의 어느 것 하나도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의 성공을 담보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박성호 & 양동우, 2015).

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Crant, 1996)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업의지라고 할 수 있다(김홍,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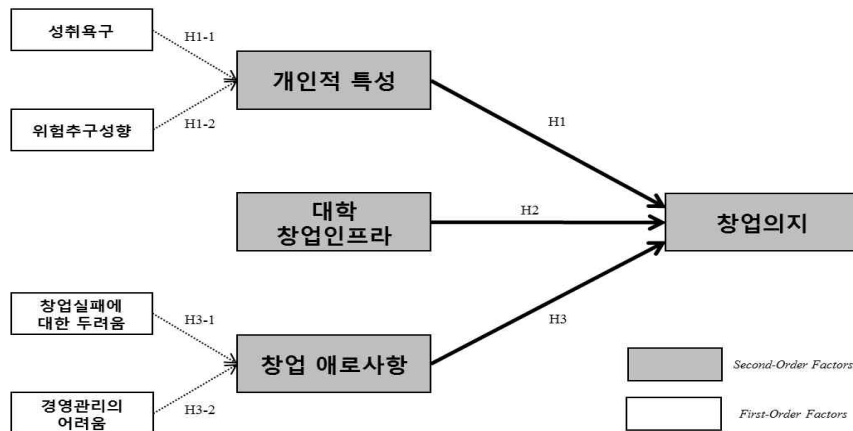
새롭게 설립될 기업의 문화와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의지이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Ajzen & Fishbein (1980)은 계획된 행동모델에서 의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여기에서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창업가의 특성이다. 위험감수성, 통제, 성취욕구, 자율욕구, 개인 통제 욕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다

(이지우, 2000). 그리고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개인특성, 심리특성, 환경특성에 관심을 두었다가 최근에는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 목표 등까지 확대되어 창업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가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에 대한 극복 의지가 높은 위험감수자 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김홍, 2012).

III.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 애로사항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개인적 특성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은 창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1.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위험추구성향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들이 대학생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영향이 있다는 연구(Peterman & Kennedy, 2003)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Hostager &

Decker, 1999)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인프라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2. 대학의 창업인프라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에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존재한다. 특히, 대학생의 창업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이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3. 창업애로사항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항목 Izedonmi & Okafor(2010), Soutaris et al.(2007), Peterman & Kennedy(2003), Brown & Dacin(1997)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 되었고, Likert 7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창업의지는 미래에 기업을 소유할 의향, 미래에 기업을 운영의향, 미래에 기업을 인수할 의향, 미래에 기업을 설립할 의향, 미래에 창업할 의향으로 측정하였다. 성취욕구는 성공을 위한 노력, 큰 성취취득의욕, 경쟁자보다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 모든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측정하였다. 위험추구성향은 기회가 주어질 시 위험이

따르더라도 잡으려는 의지, 새로운 일을 좋아함, 과감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선택, 위험이 따르는 일에 대한 도전으로 측정하였다. 대학의 창업인프라는 대학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관련 경연대회 활성화, 창업 강좌 개설여부로 측정하였다.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창업준비 과정에 어려움 예상, 실제 창업준비 과정 중 가족과의 갈등, 실제 창업시 경영능력부족으로 어려움, 창업 실패시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측정하였다.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실제 창업 시 자금조달에 어려움, 실제 창업 시 조직·인원확보에 어려움, 실제 창업 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실제 창업 시 시장개척 및 마케팅에 문제로 측정하였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검증에 위해 설문문을 통해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대학생으로써 총 132명이고, 성비는 남학생이 67명(50.8%), 여학생이 65명(49.2%)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분석에는 SAS 9.13과 SMART-PL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수 결정은 고유값이 1이상인 범주를 근거로 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방식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요인적재량을 0.50에서 추출하였다(김문태, 2010).

본 연구에서는 Second-Order Construct모형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고, 연구 가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중의 하나인 PLS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PLS 경로모형은 기존의 AMOS, LISREL, EQS 등의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총분산의 주성

분(Principal Component)을 기반으로 한 접근방식으로 추정하고,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다. PLS 분석을 위해 SMART-PLS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하는가를 살펴보는 절차이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하나의 구성개념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구성개념신뢰성

(Construct Reliability: CR)은 요인부하량과 오차 분산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값이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공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성개념신뢰도(CR)는 기준치 0.70을 상회하고 있고 모든 평균분산추출값(AVE)도 기준치 0.5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1> 요인분석

	W	T	R	A	F	I
A1	.263	.122	.205	.768	-.023	.268
A2	.211	.190	.104	.825	-.011	.125
A3	.150	.048	.079	.848	.002	.251
A4	.340	.201	.165	.805	-.022	.137
R1	.132	.100	.845	.141	.054	.223
R2	.172	.037	.853	.078	.074	.101
R3	.046	.076	.830	.095	.078	.131
R4	.115	.112	.874	.146	.140	.059
I1	-.027	-.018	.097	.166	-.096	.822
I2	.145	.027	.096	.296	.017	.792
I3	.283	.106	.191	-.015	-.009	.747
I4	.170	.027	.141	.260	-.039	.780
F1	.023	.226	.185	-.057	.819	-.045
F2	-.075	.365	-.086	.017	.652	.042
F3	-.054	.249	.119	-.026	.881	-.049
F4	.063	.076	.119	.016	.912	-.075
T1	.010	.809	.000	.110	.217	.018
T2	.092	.874	.142	.175	.183	.034
T3	.098	.823	.113	.087	.290	.034
T4	.079	.899	.107	.110	.142	.050
W1	.895	.042	.143	.133	.034	.110
W2	.905	.025	.087	.160	-.077	.008
W3	.864	.051	.048	.239	.000	.094
W4	.885	.011	.111	.200	.003	.176
W5	.834	.158	.136	.152	.027	.208

A : 성취욕구, R : 위험추구성향, I : 대학의 창업인프라, F :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T : 경영관리의 어려움, W : 창업의지

그리고, Communality 값은 측정모형에 대한 통계량으로서 측정모형의 적합성(Quality)을 나타내며, Communality 값은 최소 0.5 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Communality 값이 모두 0.5이상이므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구조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표로는 Stone-Geisser Q2 test 통계량인 교차검증된 Redundancy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으로서 구조모형의 적합성(Quality)을 나타내며, 그 값이 양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Redundancy 값은 모두 양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있다 하겠다.

구조모형에 대한 평균적인 적합도 평가에는

R2값을 이용한다. R2값은 각 내생변수별 경로모형에 대한 평가로서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모든 변수의 R2값이 0.26 이상이므로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PLS 경로모형 전체의 적합도(Goodness-of-Fit)는 모든 내생변수의 R2의 평균값과 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한 후, 이를 다시 제곱근한 값으로 정의된다(이정훈 등, 2007, Tenenhaus et al., 2005). 이 적합도의 크기는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서 상(0.36 이상), 중(0.25~0.36), 하(0.1~0.25)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의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0.5 이상으로서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경로모형의 적합도 (Second-Order Construct 모형)

구성개념	항목수	AVE	C.R.	R Square	Communality	Redundancy
A	4	0.7984	0.9406	0.0000	0.7984	0.0000
R	4	0.7844	0.9357	0.0000	0.7844	0.0000
I	4	0.6826	0.8955	0.0000	0.6826	0.0000
F	4	0.7346	0.9166	0.0000	0.7346	0.0000
T	4	0.8018	0.9417	0.0000	0.8018	0.0000
W	5	0.8303	0.9607	0.2649	0.8303	0.1918
모형 전체 적합도		0.5823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구성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관한 것으로, 판별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두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AVE 제곱근값이 상관관계보다 큰 가를 확인한다(이학식 & 임지훈, 2007).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AVE값이 크므로, 모든 구성개념들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안진우, 2011). 또한 모든 개념들의 어떠한 상관계수의 절대값도 기준치

0.8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성개념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도 없으므로 구성개념들은 전반적으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천명환, 2012).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Tolerance)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이하, TOL값은 0.3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표 3> 판별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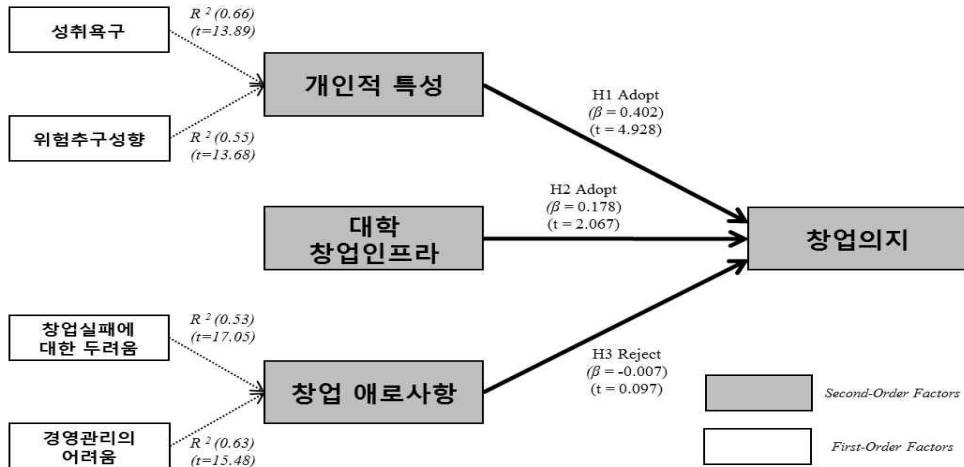
	A	R	I	F	T	W
A	0.894					
R	0.343**	0.886				
I	0.476**	0.338**	0.826			
F	0.019	0.203*	0.054	0.857		
T	0.311**	0.239**	0.126	0.479**	0.895	
W	0.491**	0.290**	0.349**	0.008	0.178*	0.911

※ The shaded numbers in the diagonal row are the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 Significant at $\alpha = 0.05$ ** Significant at $\alpha = 0.01$

<표 4> 다중공선성 (VIF)

	Tolerance	VIF		Tolerance	VIF
A	0.676	1.480	R	0.796	1.256
I	0.729	1.372	F	0.725	1.379
T	0.678	1.475	Dependent Variable : 창업의지		



<그림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두 변수를 Subconstruct로 하여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위 <그림 2>에서와 같이 Subconstruct인 성취욕구($R^2=0.66$, $t=13.89$), 위험추구성향($R^2=0.55$, $t=$

13.68)는 개인적 특성에 로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0.402$, $t=4.928$). 세부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검증에서도 성취욕구

가 창업의지($\beta=0.438$, $t=6.280$)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가설 1-1). 위험추구성향도 창업의지($\beta=0.277$, $t=3.380$)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가설 1-2).

또한, 대학 창업인프라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0.178$, $t=2.067$).

본 연구에서는 창업 애로사항을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두 변수를 Subconstruct로 하여 창업 애로사항을 측정하였다. 위 <그림 2>에서와 같이 Subconstruct인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R^2=0.53$, $t=17.05$), 경영관리의 어려움($R^2=0.63$, $t=15.48$)는 창업 애로사항에 로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 애로사항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0.007$, $t=0.097$). 세부 모형 검증을 위한 First-Order Construct 모형 검증에서도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지($\beta=0.000$, $t=0.087$)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설 3-1). 그러나,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창업의지($\beta=0.107$, $t=2.017$)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가설 3-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대학생들의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이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높은 창업의도는 실제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했다(이재훈, 2014).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대학생 창업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학생 개인

의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과 더불어 학생이 소속된 대학의 창업인프라, 그리고 창업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을 도출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식별된 요인들이 실제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의 창업인프라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 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과의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애로사항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창업인재의 발굴과 대학생에게 맞는 창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대학별로 차별화된 대학의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조사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창업행동이 아닌 창업의지를 다루어서,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실전 창업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증연구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생들의 개인마다의 집안사정이 다르고,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별로 특유의 특성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업을 결심하기까지는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분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도의 영향요인들의 직접적 영향력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높아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어떤 변수들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문태(2010), “소비자-브랜드관계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29(1), 97-115.
2.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3. 박성호·양동우(2015), “벤처기업 창업환경 및 기업성장단계가 경영에로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291-299.
4. 안진우(2011), “소매서비스업에서의 고객참여 행동 수준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0(3), 191-215.
5.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장우·장수덕(1998), “벤처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1(2), 69-95.
7. 이정훈·신태수·임종호(2007), “PLS 경로모형을 이용한 IT 조직의 BSC 성공요인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17(4), 207-228.
8. 이재훈(2014), 대학생 창업의도에 개인적 특성, 대학 및 사회의 지원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10. 이학식·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범문사.
11. 장수덕(2000), 창업자 특성, 환경, 전략 및 조직특성의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성과변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천명환(2012), “소셜네트워크 이용동기에 따른 감정적 관여, 인지적 관여의 형성과 만족,” *경영과 정보연구*, 31(2), 21-39.
13. 홍정표(2015),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Amit, R., Glosten, L. and Muller, E.(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815-834.
15. Ajzen, I. and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16. Begley, T. M. and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17. Brown, T. J. and Dacin, P. A.(1997), “The Company and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61, 68-84.

18.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19. Herron, L. and Robinson, J. R. (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 281-294.
20. Hostager, T. J. and Decker, R. L.(1999), *The Effects of an Entrepreneurship Program on Achievement Motivation : A Preliminary Study*, SBIDA, SanFrancisco, CA : Small Business Institute Director's Association.
21. Izedonmi, P .F. and Okafor, C.(2010),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Global Journal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10(6), 49-60.
22. Kennedy, J., Drennan, J., Renfrow, P. and Watson, B.(2003), *Situation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ual Conference of Small Enterprise Association of Australia.
23. Peterman, N. E. and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24. Sexton, D. and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29-140.
25. Soutaris, V., Zerbinati, S. and Al-Lahan, A.(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 566-591.

Empirical Research on 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Park, Kwang-O.* · Ahn, Jinwo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and empirically validate a model in which personal characteristic, infrastructure of business start-up, difficulties of business start-up influence the intention of business start-up.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echnique, supported by SAS 9.13 and SMART-PLS 2.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personal characteristic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tention of business start-up. Secondly, infrastructure of business start-up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tention of business start-up. Lastly, on the other hand, difficulties of business start-up had no direct impacts on intention of business start-up.

Key Words: Business Start-up, Personal Characteristic, Infrastructure of Business Start-up, Difficulties of Business Start-up, Intention of Business Start-up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College, kopark1021@ync.ac.kr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ajw10@ync.ac.kr